

지역협력 및 경제중심에 대한 유럽 사례 세미나 연설

존경하는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님,

장 자크 그로하 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멀리 유럽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과는 인연이 많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만나고,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직함이 바뀐 것을 보면 참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럽의 사례와 경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래 전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초대 총리의 서유럽 통합 구상에 깊은 인상을 받고 유럽의 통합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동북아시아에도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설립도 바로 그러한 포부와 의지의 반영입니다.

동북아는 오랜 세월 정치·군사적으로 갈등과 긴장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경제

적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고 대립과 불신은 가중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습니다. 급기야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 후에는 동서 양 진영의 대립 속에서 분단과 동족상잔의 참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바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했습니다. 역내외 기업들간의 연구개발과 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국·일본·러시아와 같은 거대 시장과 자원의 공급지가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고통만을 주었던 지정학적 위치가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면 시베리아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계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고 한국은 그 시발점이 됩니다. 서울을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파리, 런던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물류 기반, 정보화 수준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출발은 '경제'입니다.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와 연구개발·IT·금융 허브로 만들어 우리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동북아 지역에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이 철강과 석탄을 매개로 경제통합을 추진한 것처럼 동북아도 철도 연결, 에너지 공동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질서를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만을 위한 지역협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간의 관계개선을 기초로, 세계 주요 기업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동북아에 만들어질 때 안보도 개선되고 역동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관건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일본·러시아가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절실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가 쉽게 열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입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중국·러시아도 방문해서 협력을 구할 것입니다. G8 정상과 EU 각국 등 국제사회도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중점전략으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개혁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것입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셋째, 문화 혁신입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문화를 뿌리내려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필요합니다. 2010년까지 외국인투자를 국내총생산의 1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지역협력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달 초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여정부의 외국기업 정책을 지지하며, 외국
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유럽, 나아가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경제협력의 가교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닌 장점과 유럽 기업들이 상호보완
적으로 접목될 때 보다 큰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는 소중한 기
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기탄 없는 충고와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